

柴胡桂枝湯으로 치료한 천일홍(千日紅) 과민 환자 1례 보고

왕채하¹⁾, 김동명¹⁾, 이인호²⁾, 김동환²⁾, 이종훈²⁾
장춘중의학원 장춘 130021¹⁾, 아름다운 여성한의원²⁾

Abstract

Case report about allergic patient from *Gomphrena globosa* and treated Sihogyejitang

Wang Chai-Ha¹⁾, Jin Dung-Ming¹⁾, Yi In-Ho²⁾, Kim Dong-Hwan²⁾, Lee Jong-Hoon²⁾
Changchun Chinese Medical University¹⁾, Beautiful Woman's Oriental Clinic²⁾

Gomphrena globosa has not known including allergic substances. In this report, it could induce allergic diseases like itching, redness, edema, dryness all over the body. Allergic patient from *Gomphrena globosa* gained a complete recovery under the administration of Sihogyejitang.

Key Word : allergy, *Gomphrena globosa*

교신저자 : 이 종 훈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6-16 현대빌딩4층 A&A 한의원

전화 : 02-3412-7575, 011-9357-7575, 이메일 : medihoon@chol.com

접수 : 2004/ 12/ 20 수정 : 2004/ 12/ 23 채택 : 2004/ 12/ 31

I. 증 례

여모씨, 여, 52세, 장춘시민, 공장노동.
2004년 9월 16일 초진. 차트번호 :
04091606.

1. 주요증상 :

안면부와 상체 피부 홍종, 가려움이 심한지 3일

2. 현병력 :

환자는 2004년 9월 14일 오전 9시 장춘시 공원을 거닐다가 길가에 있는 천일홍을 발견하고 무심결에 어떤 향인지 알기 위해 손으로 2 가지를 꺾어 코에 대고 냄새를 맡으나 아무 향이 없어 바로 버렸다. 약 5분이 지난 후 코 주위 피부가 단단해지고 가려워지고 점차 얼굴, 상체, 상지, 양손까지 확대되었고 안색도 붉게 변했지만 허리와 하지에 소양감은 심하지 않았다. 당시 풍으로 생각하고 집에 돌아가 휴식을 취했으나 증상은 감소되지 않았고 소양감이 점차 심해졌다. 한약(약물미상)과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했으나 효과는 없었고 증상은 더욱 심해졌다. 2일 동안 음식은 밥, 만두, 감, 콩을 먹었고 고기나 게 종류 혹은 기타 음식물은 먹지 않았다.

3. 과거력 :

특이한 병력은 없었다.

4. 진 찰 :

안면 홍종과 안검이 심하게 부어 눈동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이었다. 흉배, 상지,

양손의 피부는 홍색으로 홍색의 정도 차이는 일정하지 않았다. 피부는 경직되었고 건조하며 손톱으로 긁은 흔적이 퍼져 있었다. 혀는 어두웠고 脈은 緊하였다.

5. 진 단 :

천일홍 과민반응.

6. 변 증 :

풍이 기표에 울체되고 울체가 심하여 열로 변한 것이다. 풍열을 없애고 영위를 조화롭게 치료하는 것이 좋다.

7. 처 방 :

시호 5g, 황금 15g, 계지 10g, 백작약 10g, 방풍 5g, 형개 5g, 상백피 30g, 목단피 30g, 오매 5g, 오미자 5g, 고삼 10g, 생강초 10g, 생강 2편, 대추 2개. 2첩

하루에 1첩을 물에 끓여 4차례 나누어 복용하게 하였다. 1첩을 복용 후 증상이 크게 감소하였고 피부가 부드러워졌다. 2첩 복용 후 증상이 사라져 내원하지 않고 스스로 약을 중단하였다. 약을 중단한 후 5일이 지나 피부가 차츰 소양감이 발생해 다시 진찰을 받고 약을 2첩 사용한 후 완전히 나았다.

8. 고 찰 :

천일홍은 흔히 보는 식물로 전국에서 재배된다. 화학성분은 Gomphrenin I, II, III, V, VI, Amaranthin이다. 지해평천의 효능이 있어 만성 혹은 천식성 기관지염, 백일해에 사용되며 과민반응을 일으킨다는 보고는 없었다.

본 예의 병변 특징으로 3가지가 있다.

(1) 감염경로 : 사기가 코를 통해 들어왔다.

(2) 병정변화 : 사기가 전변하는 것이 급속하다.

(3) 증상표현 : 피부에 반응이 나타나고 부위가 상반신이며 증상으로 소양감, 홍중, 피부경직이다. 한의 생리학적으로 설명하면, 코는 폐규이며 폐는 덮개로 기를 주관하여 호흡을 담당하고, 체표를 주관하여 혈이 기의 의지를 받게 한다. 따라서 사기가 코를 따라 들어와 기를 따라 흐르게 되면 전변이 신속해지고 상부 피부에서 발생이 주로 일어나게 된다. 한의 병리학적으로 설명하면, 풍이 성해지면 소양감이 생기고 풍은 양사이므로 체표에 울체되어 있다가 열로 바뀌게 된다. 기표에 사열이 머물러 있게 되면 영위 출입이 저해되어 피부의 소양감이 심해지고, 부종이 발생하고, 홍색으로 변하고, 경직이 발생된다. 병변이 이미 광범위하게 되어 상초의 기기, 영위, 기, 혈에 영향을 미치면 비록 하반신에 병변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전신의 기기에 영향을 미친 것이기 때문에 혀가 어둡고 脈이 弦緊하다. 병증에 근거할때, 풍이 기표에 울체되어 열로 변하였고, 영위 출입이 저해되어 피부 소양증이 심하므로 풍열을 없애고 영위를 조화시키는 것 위주로 치료를 한다. 전신의 기기를 고려하여 처방은 시호계지탕을 선택하여 가미하였다. 방중에 시호, 황금은 소시호탕의 주약으로 전신기기를 조절하는데 사용하며 그 효과는 장중경의 [상한론]에 “상초가 소통되고 진액이 아래로 내려가 ……몸에 점차 땀이 나며 풀린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계지,

백작약, 생강, 대추는 계지탕으로 영위조절과 거풍지양에 사용된다. 방풍, 형개는 계지탕에 배합되어 거풍시켜서 피부 소양증이 가라앉힌다. 오매, 오미자는 계지탕에 배합되어 기표를 부드럽게 해주어 피부경직을 풀어준다. 상백피, 고삼은 열을 배출시켜 사기가 울체된 것을 없애주어 더욱 소양감을 그치게 한다. 목단피는 청열시키는데 풍을 다스리려면 먼저 혈을 다스리라는 의미로 혈이 행하면 풍은 자연 사라진다. 생감초는 제약을 조화시키는데 시호, 황금과 배합되면 소시호탕의 의미가 되고, 계지, 작약과 배합되면 계지탕의 의미가 되며, 고삼과 같이 사용되면 해독작용이 강해지며 목단피와 같이 사용되면 양혈작용이 강해진다.

본 의안에 사용된 처방의 중점사항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소시호탕과 계지탕의 배오이다. 전통적인 각도에서 볼 때, 풍, 열, 영위, 전신기기 등의 병기가 관건이므로 잘 살펴 사용하여야 한다. 현대적인 각도에서 볼 때, 두 처방 모두 과민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2. 목단피는 행혈하여 제풍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표에 직접작용을 일으키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일화자본초]에 “사기를 제거하려면 기표 혈맥을 소통시켜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생감초는 [본초강목]에는 “오장육부 한열사기를 주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해독작용이 있다. 감초는 여러 약

물을 해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물도 해독한다. 따라서 [본초강목]에 “해독”은 “해약독”이 아니라는 명언이 있다. 현대 연구에서 감초는 부신피질호르몬양 작용이 있으며, 항염작용이 있다.